

## 법대 후원의 밤 진행 18일 상록원 3층서

본교 법과대 후원회(회장=이연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와 법과대(학장=연기영)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국법학 창설 50주년 기념 동국법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밤'이 오는 18일 오후 7시 상록원 3층에서 열린다.

오석근 이사장,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등을 비롯한 학내외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행사는 △1부-정상영 금강고려회장, 이성태 불국사 주지 등 23인에 대한 감사패증정 △2부-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연기영 법과대 학장은 "보다 특성화되고 발전하는 법대를 만들기 위한 시급성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비교법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행사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 학생회 선거 투표 16일부터 3일간

## 서울캠 2차 유세까지 마쳐... 경주캠 총대 이강훈·이치운 조 당선



사진/양영민 기자

지난 5일 서울캠 동관 앞에서의 2차 유세로 사실상 선거운동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던 서울캠 학생회 선거의 투표가 내일(16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투표는 16일 오전 10시부터 12개의 단과대에서 일제히 치러지며, 야간강좌는 오후 2시30

분부터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특히 야간강좌 중 명진관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영문과와 중문과, 반도체과, 정보통신공학부의 학생들은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동관관에서, 오후 5시부터 23시까지 명진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는 2차 중앙기구 합동유세와 5개 단과대 선거 후보자들의 유세가 각각 진행됐다. 2차 합동유세에서 총여와 총학의 후보들은 다시 한번 학생들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으며, 특히 이날 유세에는 후보자의 부모님이 직접 참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늘(15일) 오후 2시 도서관

앞에서는 총대, 총여, 총학 후보의 합동 3차유세와 오후 7시에는 야간강좌 총학생회 후보의 유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진범(영문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2-3년에 비해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현재 학생회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만큼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치러지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경주캠 학생회 선거의 경우 총대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강훈(경영3)·이치운(생물3)조가 지난 10일 총유권자 95명 가운데 63명이 투표해 찬성 57표

(66.2%), 반대 2표, 무효 4표의 결과로 제17대 총대의원회 정·부의장으로 당선됐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2학기 들어 전체대의원 1백77명 가운데 95명의 대의원만이 등록 해 54.8%의 저조한 등록율을 보여 일부에서는 선거시행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총여학생회 선거의 경우 지난 2일에서 5일까지의 후보자 등록 결과, 최진욱(고미사3)·정수미(불교아동3)조가 단독 입후보했으며,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여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휴게실 증설 △기층 학생회 강화와 위한 여학생회 구성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된 성폭력 학칙 개정 등이다. 총여선거의 투표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한편 총학생회는 오늘(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받으며, 투표는 총여와 같은 날인 12월 1일에 치러진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 지면안내

☞ 전하는 휴대, 예절은 필수 7면



'범람' 수준에 이르고 있는 휴대전화. 이 시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

은 휴대전화에 대해 알아보고 학내에서의 문화는 어떠한지 되짚어본다.

☞ 경주캠 학생회 선거 본격 '출항' 3면

☞ 교수를 스카웃한다? 5면

☞ '등단' 작가 인터뷰 6면



### 낙엽을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며

전 해 주(불교대 불교학부)

동학에 노란 은행잎이랑 갖가지 단풍이 가득하고 낙엽이 흩날리고 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무상(無常)함을 실감하게 한다. 그리하여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존재에 대하여 많은 사색이 있어왔고 정의가 내려져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금 묻는다. 나는 누구이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왜 그런가? 그것은 다른 이들이 아무리 고뇌하고 자아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을 찾아야 할 나의 몫은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어떤 존재이며, 왜 지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일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고집멸도(苦集滅道)로 교설하셨으니 이를 내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라고 한다. 지금 '나'라는 존재는 고(苦)로 파악된다. 우리는 살면서 괴롭게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괴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일체 존재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한 것이다.

이러한 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연법으로 말씀되고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어리석기 때문이며, 무상한 줄 모르는 어리석음에 의해 끝없는 탐욕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스럽기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물론 아니다. 고통이 다 사라지고 영원히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바로 참 나의 세계의 열반적(涅槃的) 세계이다.

그러한 고가 다 멸한 세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도(中道)의 길을 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도를 실천하는 여덟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실천해 보여 주셨다.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한 여덟갈래 길위로 땀방울을 흘리며 '참나'를 찾는 가을이 되었으면 한다.

## 등록금 문제, "국가재정 확보가 우선"

### 각 학교 학생회 선거 최대 이슈로 떠올라

사립대 등록금 인상 문제가 올해 학생회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주요 사립대 학생회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선거운동본부들은 등록금 문제를 공약중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인상저지를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학년도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대가 교장 추천전형의 합격자 등록에 차금을 평균 15%인상해 고지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사립대들도 10%내외의

선에서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교 또한 이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 2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나머지 대학들은 재정문제의 자기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와 각 사학법인의 재정 확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교육재정 6%확보는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며, 각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 이승복·김대광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미국의 교육철학 분쇄! 교육개발 반대! 김대중정권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회와 대신

공약 6%확보, 법인전입금 확충, 등록금 동결을 위한 일민이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에는 지난 12일 현재 7천여명의 학생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반교육적인 정책을 바꾼다고 등록금을 동결시켜내는데 그목적이 있다"며 오늘(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0학년도 등록금 인상문제는 학생회 선거를 지나면서 지난 2학기 초 진행된 기상회비와 수업료 통합문제에 이어 다시한번 대학가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강남한방병원 개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방병원은 대지 3백19평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규모로 지난 11일 개원을 알리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대학부

## 양캠 복수전공 합격자 발표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은 지난 12일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를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학기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제1전공과 제2전공을 모두 포함해 총 9백3명이 지원했으나 1백30명이 탈락했다.

전체 복수전공 지원학과 중 지원율이 1백%를 훨씬 웃돌았던 문예창작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본학과, 회계학과, 광고학과 등은 정원을 초과해 배치했다.

한편, 경주캠 학사지원실(실장=차선구)은 지난 9일 복수전공 이수허가자를 공고했다. 올해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

은 제1전공과 제2전공을 모두 포함해 총 3백27명으로 지난해보다 4.8% 상승한 16.5%의 지원율을 보였다.

제1전공 지원자 4명을 제외한 3백27명이 배정됐으며 지원율이 가장 높은 관광경영학과는 1백11%로 모두 배정됐다.

### 서삼 큰스님 초청법회 개최 오는 18일 정각원서

서울캠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 전 조계종 종정인 서삼 스님을 초청한 가운데 고승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 2000학년도부터 교과과정 대폭 개편

### 일부단대 마무리 작업 진행... 교양강좌도 바뀔 듯

오는 2000학년도 1학기부터 표준교과과정 적용에 따라 본교의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된다.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은 지난 3월부터 모집단위 광역화에 맞춰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교양강좌와 불교대, 이과대,

공대 등 몇몇 대학의 개편작업을 대부분 마무리 한 상태다.

이번 개편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학점을 80학점내외로 강화하고, 교양강좌의 내용을 기초학문위주로 개편하며 기존 6영역 이수를 4영역으로 축소했다. 교양강좌개설의 규모는 축소

되는 반면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동안 1.2학기가 구분되어 개설되던 강좌를 대폭 줄여 1.2학기 동시개설 할 예정이며 기존의 교양과목은 각 단과대가 개설권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 각 학과에서 전임교수를 위주로

교양과목 개설권과 강사위촉권을 갖게 된다. 또한 사이버 강좌가 늘어남에 따라 교양필수과목인 '국어작문의 이해' 등은 사이버 작문 등과 같은 강좌를 동시에 개설해 1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강의평가제와 모니터링을 통한 여론 수렴으로 강좌 과목조정은 매년 시행할 예정이며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32대 총학생회 정 이승복(반도체학과 3) 김대광(국어교육학과 3)  
웃으며 맞이하는 자주의 세아침! 일만 우리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합시다.

37대 총학생회 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2대 총학생회 정 이승복(물리학과 2) 김대광(국어교육학과 3)  
틈새에서 새 세아침! 신나는 성장 Upgrade.

37대 총학생회 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지막 유세 : 11월 15일(월) 오후 2시 중도앞  
투표일 : 11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서울캠

## 수습기자모집 24일 마감 발전기금 ARS 7000-119

### 제 37회 동대 학술상·제 14회 동대 문학상 모집

-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 본상 및 가작  
사회과학상 - 본상 및 가작  
자연과학상 - 본상 및 가작
-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 199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 △시 상 : 인문과학상 -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 △입상작 발표 : 2000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모집분야 : 시부문 - 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 - 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 - 본상 및 장려상
- △응모요령 : 시부문 - 3편내외  
소설부문 -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 199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 △시 상 : 시부문 -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 △입상작 발표 : 2000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동대신문사 02)2260-3491/2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 동국관·혜화관 등 공간 대이동 시작

## 다양관 공사 진행... 공개적인 개편 논의 필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다양한 공간문제가 해결돼 지난 9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핵심사안이었던 '보리수' 공간이 다양한 1층 내부 60평과 외부공간 30평 등 총 90평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된 다양한 공간 배치를 살펴보면 △1층=보리수, 복지매장 △2층=SRC(양자가능 반도체 연구센터) △3층=정보관리실, 통신실, 복지매장 2곳 등이다.

다양관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각 복지매장들이 교내 곳곳으로 이전 배치됐다.

현재 임시로 이전된 장소를 살펴보면 △서점, 문구점=강의동 101호

△안경점=상록원 1층 매점 옆 △잡화점, 사진관, 기획사, 컴퓨터 매장=컨테이너 △이발소=도서관 지하 창고 등이며 이발소는 공사가 끝나도 계속 도서관 지하에서 영업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공사로 제일은행의 현금출입기를 본관 옆으로 이전했으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양한 도로의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다.

한편, 아직까지 명진가든 문제를 둘러싼 공간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다양관의 공간이동과 비슷한 시기에 동국관의 공간배치와 명진관의 공간문제가 제기된 것은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혜화관의 컴퓨터실

과 언어교육원이 문을 닫았고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학과는 학생회실과 실습실의 이동을 두고 동국관 5층 실습실을 점거하는 등 학생회실을 명진가든으로 이전하고 실습실을 본관지하에 마련해 주겠다는 학교 당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명진관 공간문제에 대해 "학생회실을 명진가든에 배치하고 2층에 컴퓨터실을 배치하면 학생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이용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명진가든은 큰 내부공사가



지난주부터 다양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공간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 사이에 '비밀공사'라는 논란을 낳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 졸업앨범 추가 접수 실시

### 재촬영 사진 확인작업은 20일까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노승수·화공4)는 오늘(15일)부터 30일까지 추가로 졸업앨범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촬영을 하고 2학기 휴학으로 앨범비를 납부하지 않은 4학년, 복학생, 조기졸업자, 후기졸업예정자 등 2000학년도 졸업앨범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조흥은행 371-04-332260(예금주=노승수) 계좌로 졸업앨범비를 포함한 7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단, 무통장 입금시 화과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한편, 오는 20일까지 졸업위 사무실에서는 재촬영한 사진 확인작업을 실시하며, 확인하지 않을 때에는 재촬영한 사진이 실리게 된다.

## 창업연구회, 특강 개최

###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 설명회도 병행

벤처 창업동아리인 창업연구회(회장=박병복·전통4)는 오는 18일 개교90주년기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변리사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변리사 조현석(특허청 사무관)씨를 초청해 '21세기 창업시대와 변리사가 되는 A-to-Z'라는 주제로 열리는 강연외에도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에 대한 설명회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창업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에게 특허와 발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16대 원총 선거 난항

### 후보마감결과 출마자 없어

16대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 건설을 위한 선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24일과 25일 이틀동안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등록마감결과 출마자가 없어 이번 주 종료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선거위의 한 관계자는 "후보 등록기간을 늦추거나 내년 3월로 선거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겠다"

### 노학연대 실천단 토론회·결의대회 진행

'99동국대 노학연대 실천단(단장=박종근)은 지난 12일 불상 앞에서 '99 노동자 대회·청년학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렸던 '99노동자대회·민중대회' 사전행사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동이리연합회 한세영(전기공3) 당선자는 "회사살리기 운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노동자 죽이기와 다를없다"며 "이번 노동자·민중대회를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에 적극 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노학연대 실천단 토론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와 현장통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자본의 현장통제 분쇄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할 것을 논의했다.

## 강의평가제도 개편 시행

### 결과 분석해 강의에 적극 반영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은 다음 학기부터 강의평가제를 새롭게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강의평가제는 교수 자율에 맡겨 강의평가의 유무에만 의미를 두고 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어 학생들의 의견이 다음학기 강의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설문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내용을 전문기관의 통계분석을 통해 교수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다음학기 강의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강의평가제의 이용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공정한 강의 평가를 위해 신재호 교무처장을 중심으로 계열별로 8명이 참여하는 강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과 타대학의 사례를 검토해



'취업하자'... 다시 취업 시즌이다. 그러나 다소 침체된 경제 탓인지 그리 즐거운 시간만은 아닌 듯 하다. 본관 로비에 마련된 취업정보를 학생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본교의 실정에 맞는 평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일본학연구소 세미나 개최

### '21세기...' 주제로

본교 부설 일본학연구소(소장=공로명 석좌교수·아시아지역학)는 오는 16일 개교 90주년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21세기 일본의 진로: 보통국가? 군사대국?'이라는 주제로 공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일본학연구소 개소 2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송승구 총장의 개회사와 최상룡(고려대)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이어서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김우상(속명여대) 교수 스나기미야 다다시(노무라연구소 서울지국장) △모리 지하루(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야마모토 타다미치(주한 일본공사) △현인택(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일본의 진로'라는 주제에 진행되는 토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 고수동정

▲신용태(일어일문학)=오는 16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제38회 경기도 문화상 인문과학 학술부문 수상.

## 사회학과 20주년 학생학술세미나 진행

### BK21·학생회문제 중심으로 다뤄



지난 11일 '대학구조조정과 학회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학생세미나가 진행됐다.

사회학과 창립20주년 기념학술제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됐다. 그 중 사회학과 학생들의 학술세미나가 지난 11, 12일 양일간 정보문화관 강의실과 덕암세미나실에서 치러져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회학과 소모임 새로운 사회연구회는 '대학구조조정과 학회의 대응전략-BK21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육정책에 대한 역사적고찰을 중심으로 그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BK21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본교의 교육정책 사례를 다루었으며, 무엇보다도 학회를 통해 교육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

향을 모색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회의 대응책들이 대학 현실과 동떨어져서 그 나름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교육의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학회라는 소수 실천 단위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입을 모았다.

다음날 개최된 세미나는 '전공학회의 가능성-학생회 없는 대학사회를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사회학과 20주년기념 행사준비위원회 학술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최근 교육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대학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공동체 문화가 와해되고 학생회 조직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전제로 전공학회의중심 학생회 체제로의 전환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 교직복수전공·부전공 이수

- 교직복수전공
  1. 공통사항
    - 1) 이수자격 : 복수(학위)전공자로 선발된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 2) 이수범위 :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전공)
    - 3)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학위복수 전공신청으로 대체함.
  2. 이수학점
    - 1) 복수전공학과 표시과목 관련 교직기본이수영역별 대체교과목(9학점이상)과 전공학점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2) 교직과목이수 : 주전공 교직이수시에 취득한 교직과목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 이미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차 이수할 필요가 없으나, 교직과목 중 복수전공과과의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3) 비사범계 학생은 복수전공과과의 취득평점평균이 80점(B+) 이상 이어야 함.
- 교직부전공
  - 1) 이수자격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 2) 신청시기 : 99. 11. 22(월) ~ 11. 26(금)
  - 3) 신청방법 : 부전공 이수 신청자에 부전공학과 주입교수 합의를 받아 사범대학 교과과에 제출함.
  - 4) 부전공학과 교직기본이수영역별 대체교과목(9학점이상)과 전공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5) 교직과목중 부전공학과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6) 비사범계 학생은 부전공학과 취득평점평균이 80점(B+) 이상 이어야 함.
- 기타유의사항
  - 1)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 2)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을 갖추어도 주전공 교직 이수과정이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에 미달되었을 경우는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 자격증 발급이 자동 취소됨.
  - 3) 교직복수 이수자중 이수학점이 복수전공 학점에는 부족하나 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는 부전공 이수를 자동 인정함.
  - 4)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동일학과에 신청한 자가 교직복수전공 자격증 발급요건을 갖추었을 경우는 별도로 부전공 과목표시는 하지 않음.

서울캠사범대

##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박람회

- 5개국 유학안내관을 초청하여 유학 및 어학연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유학 및 어학연수 자료제공과 개인상담으로 진행되는 본 박람회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11월 15일(월) ~ 11월 19일(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단, 미국은 오후 2시 ~ 5시)
  2. 요일별 일정
    - 1) 11월 15일(월) : 캐나다(대사관 교육원)
    - 2) 11월 16일(화) : 영국(영국문화원)
    - 3) 11월 17일(수) : 호주(IDP)
    - 4) 11월 18일(목) : 미국(한미교육위원회)
    - 5) 11월 19일(금) : 일본(일본유학정보센터)
  3. 장소 : 본관 3층 학사지원실 옆 로비
  4. 내용 : 자료제공 및 개인상담
 

\*문의 : 학생상담실(구내전화 3930, 3931)

국제교류담당관실(구내전화 3875)

서울캠 학생상담실 · 국제교류담당관실

## 특 강

- 사회교육원에서는 사회교육원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강을 개최합니다. 학내 구성원 및 동국가족 여러분들이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일시 : 99. 11. 16(화) 오전 11시
  2. 장소 : 동국대학교 90주년기념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3. 연사 : 노안섭 박사(본교 식품공학과 교수)
  4. 연제 : 성인병과 식생활
  5. 강의내용
    - 1) 건강의 정의
    - 2) 성인병이란?
    - 3) 성인병의 종류
    - 4) 성인병의 발생원인
    - 5) 비만의 정의와 범위
    - 6) 압
    - 7) 흡연의 요령
    - 8) 음주요령
    - 9) 무좀의 원인과 치료
    - 10) 건강습관
  6. 문의 : 사회교육원 교학과(교내 3728 ~ 9)

서울캠 사회교육원

# 2천학년도 온방골 학생회 선거 대단원의 막 올라

## 상경대 시작으로 각 단대 및 자치기구 본격적인 유세 돌입

### ▶1면에서 계속

법정대와 학복위를 제외한 모든 단대 및 자치기구가 입후보 등록을 마쳐 이제 확대는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이하게 됐다.

오는 16일 상경대를 시작으로 치러지는 단과대 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선거일정(순서대로 △선거공약 △선거유세△선거일△약력)은 다음과 같다.

**【불교문화대】** 후보 정 : 조태영 (불교3)·부 : 최현정(불교야동3)이 단독 입후보했다.

△불교문화대 대외봉사활동(연꽃마을) 실시, 불교문화대 학생동아리 연합회 개회, 불교문화대 학생회 연합 M·T △11월 15일~22일 오전 8시 20분, 오후 5시 30분 원효관 △11월 23일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 원효관, 영산관 로비 △정 : 99불교학부 비상대책위원장

부 : 99불교야동학과 기획부장 **【자연과학대】** 후보 정 : 김상은 (생물3)·부 : 최은주(가교3)가 단독 입후보했다.

△학회·과 학술교류를 위한 소식지 발간, 자연과학관 구내매점 설치, 실험실 사고발생에 따른 보상처리 학칙제정, 자연과학대 24시간 개방, 학회·동아리 등 자치예산 배정, 실험 실습비 내역에 관한 투명성 확보, 모집단위 광역화 반대, BK21 철폐, 과 학생회 LAN선 설치, 패스트푸드점 유치 및 영업시간 보장 △11월 16일 오후 3시 자연대 앞 △11월 18일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 진흥관 1층 로비, 자연과학관1층 로비 △정 : 99생물학과 학생회장, 부 : 99자연과학대 학생회 문화부장

**【상경대】** 후보 정 : 이성우 (경영3)·부 : 손석우(경상학부2)가 단독 입후보했다. △교수·학생 연

결고리 강화, 학술제 및 세미나 개최, 설문 조사와 강의 평가제 강화, 학생회 소식지 발간, 사업의 회비 지출에 대한 회계자료 공개, 자격증 정보 제공, 현장견학 기회마련, 학부생간 유대 강화, 행사 내면화 중점, 상경대 소속 동아리 활성화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 통일관 △11월 16일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 진흥관 1층 로비, △정 : 98경상학부 학부회장 부 : 99경상학부 학생회 부회장

**【의과대】** 후보자 정 : 지예섭 (본1)·부 : 임재우(본1)가 단독 입후보했다. △동참회 결성유도, 매점·주차장문제 해결, 대외 홍보사업 설치, 의과대 홍보지 제작 및 발송, 간호학과와 분리 추진, 일산병원 진행상황보고 문제시 즉각적 요구, 교육환경개선 △11월 11일~23일 오후 7시 의과대 종합강의실 △

11월 24일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 의과관 2층 △정 : 98의예과 학생회장 부 : 무

**【야종】** 후보 정 : 최현수 (법3)·부 : 이승현(호법경영3)이 단독 입후보했다. △야간교양과목 확대, 학사행정의 편의성 확보, 아르바이트 및 학비마련 기회 및 정보제공, 각 학생회 전산장비 확충, 홈페이지 개설 △11월 8일~16일 강의실유세 △11월 17일 시간 : 오전 10시~오후 10시 장소 : 자연과학관3층 로비, 진흥관1층 수위실 앞 로비 △정 : 법학과 과대표 부 : 99호법경영학과 학생회장

**【동연】** 후보 정 : 양운광 (경영2 대차원 봉사단)·부 : 이현숙(영문3 소리창고)이 단독 입후보했다. △제2학생회관 건축 요구, 노천강당 스탠드 증축과 산책로 조성, 학생회관 24시간 개방, 원효관 동아리 우편함 설치, 패스트푸드점

유치, 원효관 옥상 야외등 설치, 동아리방 도난 방지 설비, 동아리 연습실 확충 △11월 8일~16일 개별 동아리방 유세 △11월 17일 시간 : 오전 10시~오후 8시 장소 : 동아리 연습실 △정 : 95대차원 봉사단 회장 부 : 98소리창고 회장

**【졸준위】** 기호1번 정 : 백석호(정보산업3)·부 : 김진우(회계3) 조와 기호2번 정 : 신성식(법3)·부 : 최성원(국사3)조가 입후보했다. △기호1번 : 벤처동아리 육성, 엘범 공개입찰, 취업정보뱅크 창설, 취업박람회 본교 유치 기호2번 : 새로운 직업·직종 소개 및 소식지 발간, 해외유학 및 취업 정보제공, 초청세미나 및 모의면접 실시, 전국취업박람회 본교 유치, 졸업생과 재학생의 만남의 장 개최, 4학년 취업세미나 개최, 앨범 제작시 CD 앨범 첨부 △11월 22일·23일 오전 8

시 30분, 오후 5시 30분 교내일원 △11월 24일 시간 :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 각 단대 수위실 앞(원효관, 진흥관, 자연대, 한의대, 의대) △기호1번 정 : 99야간강좌 총학생회장 부 : 99동문회장 기호2번 정 : 99금강생활관 자치위원장 부 : 99국사학과 학생회장 등이다.

**【경상학부】** 후보 정 : 최규식 (경상학부1)·부 : 박준민(경상학부1)이 단독 입후보했다. △학생복지 향상도모, 학부 동아리 활성화, 경상학부 사이버 룸 개설, 학부생간 유대 강화, 각 학과 세미나 실시 △11월 11일 오후 2시 30분 진흥관 통일광장 △11월 16일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 진흥관 1층 로비 △정 : 경상학부 축구동아리 '미르' 창단멤버 부 : 99경상학부 과대표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 히전무대

### 특권

○...총대선거의 3가지 특권?!  
무슨 말이고 하니 지난 10월 17대 온방골 총대선거가 이색(?)적인 선거법으로 치러져 주위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알아보니 1. 유권자 신분확인(안면으로?), 2. 선관위의 확인도 안면으로(?), 3. 투표용지 제작은 마음대로(?), 이에 모 대의원 왈 "오고가는 안면속에 썩트는 의혹선거!"

### 무법자

○...무대포 정진(?)  
무슨말이고 하니 지난 10월 동연 주최로 선경동 일대에서 치러진 거리문화제에 찬물을 끼얹는 무법자들이 등장했다는데. 일각분측 행사관계로 통제된 일부 통행 구간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차량이 공연 관람자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고. 더욱이 이들은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과의 입씨름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에 관람하던 학우 왈 "카레이스 쇼도 문화제에 포함됐었던 가요(?)"

### 그냥 웃지요

○...“아름다운 밤이예요!”  
각 학과의 학술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마지막 순서로 '000의 밤', '000의 밤'이라는 학과 행사들이 줄을 잇는데. 이것은 일반 학생들이 보기에 따라 학과들의 경쟁으로까지 비칠 수 있다고. 이에 아직까지 과 '△△△의 밤'에 한번도 참석해 보지 않았다는 한 학생, 아쉬움을 토로하며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뭐하느냐 물으면, 그냥 웃지요!"

### 전파 접근금지구역

○...결연 연결된다?  
목errick 도서관에 휴대폰 전파차단기를 설치함에 따라 도서관내 휴대폰 사용이 이제 불가능 하다고. 그동안 휴대폰 소음공해에 시달려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던 학생들은 이제 무례하게 휴대폰 예절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괴로움을 얻는 없는데. 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도서관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이에 도서관 관계자 한마디. "미안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 특별열람증 발급

### 1회 5책 10일 대출 가능

도서관(관장=이석장·영문학)은 지난달 19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주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 52명에게 교사학습 및 연구활동의 편의를 위해 특별열람증을 발급했다. 발급된 열람증은 경주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재직기간 중에 이용 가능하며 대출조건은 1회 5책 10일이다.

이와 관련해 이석장 관장은 "개인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교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경주 인근 중·고등학교와의 교육협조체계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18일, 상공인 초청간담회

취업지원팀(팀장=김용기)은 오는 18일 오후 6시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주지역 상공인 초청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와 기업체 간의 협동체제 구축 △학교 홍보 △학생취업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경주소재 특정기업체와 기업인을 살펴보면 △경주상공회의소(이종구 사무국장) △삼화제과(임한욱 대표이사) △국제레미콘(최충환 대표이사) 등이며, 학교 내빈으로는 부총장, 학생처장, 취업지원팀장 이 참석할 예정이다.

## 도서관 1층 멀티미디어실 개소... 효율적 정보활용 기대

### 일·한번역기·그래픽 편집·멀티미디어 매체 제작도 가능

도서관(관장=이석장·영문학) 1층 TE실습실이 오는 19일부터 멀티미디어실(Multimedia Room)로 개설돼 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멀티미디어실은 기존의 관광경영학과 가이드실습실로 활용돼 왔으나 이용학생의 부족과 효율적인 도서관 공간 활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PC 및 기자재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1억 5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개설한 멀티미디어실은 총면적 67평의 규모로 설치됐으며, 갖추어진 정보시설은 △비디오 시청 및 위성방송 6채널(KBS위성, OCN, STAR, BS, CNN, 불교방송) 및 공중파 시청, 비디오자료 시청

△멀티미디어 PC코너 - VOD(Video On Demand), AOD(Audio On Demand)이용, CD-ROM 컴퓨터 파일자료 이용, TV수신카드를 통한 위성방송시청 △오디오 코너 - Audio 형태의 어학, 교양, 학습자료를 이용한 어학 학습, 음악 감상 △마이크로 자료 코너 - 불교신문, 마이크로 필름 및 피서 자료의 검색 및 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멀티미디어 제작코너에서는 PC 4대, 스캐너 2대, CD-ReWriter 1대, CD-Writer 1대가 마련돼 이용자들의 원문 스캐닝과 일·한 번역기 활용은 물론, 그래픽 편집과 멀티미디어 매체제작도 가능하다.

한편 멀티미디어실의 모든 자료는 실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수업교재, 교내 행사 활용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실외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이 가능하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실습실 이용시 유의사항은 △취급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기자재 및 자료 파손시 동일 변상 △실내 음식물 반입과 흡연 금지 △실내 대출 자료 반출 금지 △오락, 채팅, 음란, 폭력물 및 비교육적 정보 활용 금지 등이며, 이를 위반한 이용자는 강제 퇴실시킬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석(학술정보관리팀)과장은 "멀티미디어실 내

에서 최첨단의 다양한 정보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한 유익한 생활·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이번 멀티미디어실에 국내 주요 국립대의 시설과 비교해 각 대학들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한 최고의 자료와 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구비된 자료가 타 대학보다 월등한 정보들로 구성돼 있다.

멀티미디어실 개설로 경주캠퍼내 문화공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확충돼 학생들의 향상된 정보 활용을 누릴 수 있을것으로 기대 된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 ‘덕봉 이진택 선생’ 자료전 19일부터 개최

### 조선시대 경제·사회제도 관련자료 5천여점 전시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덕봉 이진택 선생' 자료전이 오는 19일부터 내년 4월까지 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조선시대의 경제와 사회제도, 풍

습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2백여 년 동안 구성된 덕봉 선생의 고서 및 고문서 5천여 점의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권(試卷)=문과응

시 작성 답안지 △복시(覆試)의 초·중·종장의 시권 △홍패(紅牌)=문과 급제 표시 △각종 교지(敎旨), 유지(有旨), 노문(露文) 등이 포함돼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 경주시 산내면, 무료 의료봉사 실시

### 진료의사 및 봉사자 34명 참가

경주병원 불교회(회장=강석·정형의과)는 지난 13일 경주시 산내면 면민 회관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오지에 불교정신 전파 및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가진 이번 행사는 지도법사 일장스님과 진료의사 8명을 비롯한 34명의 봉사자가 참가했다.

이날 치러진 진료 과목은 △내과 △정형의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등이며, 노인 및 주민들에게 안경 2백여개와 단주 5백여개를 무료로 나눠주었다.

의료봉사와 관련해 강석 회장은 "앞으로 매 분기마다 의료봉사를 개최해 산내-양남-양북-안강까지 진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회는 일반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달 7일과 8일 양일 간 경주병원에서 호스피스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프린터기 2대 설치...장당 60원

### 도서관 정보검색실·교육상담실에

정보관리실(실장=조영석·컴퓨터학)은 오는31일까지 도서관 1층 정보검색실과 2층 교육상담실에 무인 프린터기 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설치할 예정이던 프린터 사용 가격이 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학생회관 지하(현주컴퓨터)의 프린터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장당 1백 50원)을 부담했으나, 도서관에 설치될 프린터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돼 학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

프린터기 사용안내를 살펴보면 △사용시간=주말·평일 : 오전 9시~오후 5시 △카드 판매소=교육상담실(도서관 2층) △사용요금=장당 60원 등이며, 프린터 전문점 베리텍(대구지사)이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진태(정보시스템 관리팀)팀장은 "이번에 설치될 무인 프린터기가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몇대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학생회 지분분쟁을 진단한다

## “지분기준 개정 ... 반론제기”

### 조속히 지분문제 매듭지어야

매 학기가 바뀔때마다 학생기구는 학생회 지분을 두고 분쟁이 일어난 바 있다. 이번 4/4분기에 서도 어김없이 지분분쟁이 일어나 두달 가까이 지분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1일 2차 지분회의에서 불분대 학생회(회장=류동호·불교3)는 학생회비 지분이 단과대 학생 인원에 비례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학생회비 지분의 기준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총대의원회의(의장=이상해·회계4)에서 개정안을 작성해 각 단대로 공문을 보낼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후 총대에서 발송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단과대 및 자치기구의 사업계획 조사 후 일정의 학생회비 동등 배분 △단과대 학생 인원수에 비례한 학생회비 배분 등이다.

이 개정을 두고 지난 5월 3차 지분회의가 이뤄졌으나 새 기준안으로 학생회비가 배분될 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반론을 제기하는 몇몇 단

대가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기준안은 자치기구의 경우 회비 배분에 별차이가 없으나 일부 단과의 경우 기존의 회비와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의견이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다. 이에 황재영 총학생회 부회장은 "현재 5개 대표자만이 참석했으므로 지분결정은 중운위 안건으로 상경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제의했고, 이에 회의 참석자들의 동의로 회의가 또 다시 무산됐다.

지금 학내에 이미 선거에 돌입한 상황이다. 학내의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학생회 간부의 불성실함은 물론 실질적인 학생회 사업이 지적이 시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학생회는 중운위를 통해 조속히 지분회의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며, 지분분쟁으로 소모되는 시간을 학생복지를 위한 사업 전개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 거북이 행정...

최근 몇년간 학내의 건물이 신중속되며 변화가 생기고 있으나 인내도 개점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 내년 분납 시행여부 불투명

### 분납미납자 처리 방침에 혼신

지난달 23일까지 마감 예정이었던 2학기 등록금 분납납부가 사실상 지난 11일 마무리 지어졌다. 그러나 현재 8명의 학생이 미납한 실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등록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

미등록한 학생이 지난 학기보다 늘어나 제적처리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에도 혼신이 빛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무회계팀(팀장=신봉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현황을 감안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등록을 받고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복과, 전공 테잎 시각장애인에게 전달

사회복지학과(학과장=박경일·사회복지학)는 지난달 20일 본교 지역개발대학원 사회복지 1기생인 이종용(시각장애인)씨에게 사회복지 전공 문헌 테이프 50개를 전달했다.

전달된 테이프에는 수해자 이종용씨가 졸업 후 노인복지시설 설립 시 필요한 관련법규 및 자료 등이 수록돼 있다.

테이프에는 '자원봉사조직 및 활동론'을 수강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 45명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박경일 교수는 "수강생들이 자원봉사를 이룬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보다 많은 봉사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 말했다.

## 중국 자매대학 교환학생 경주캠 5명 선발

연구교류실(실장=고창택·철학)은 지난 4일 선발된 '해의 자매대학 교환학생' 명단을 발표했다. 중국에 있는 자매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청화대학=천홍승, 김창욱(중문2) △남경대학=신용희(중문2) △상해사범대학=김정훈(중문2) 이민지(외국어문2) 등 5명이다.

교환학생 선발기준은 △해당국가 언어20% △회화20% △면접40% △성적20% △4학기 이상 이수 등이다. 선발된 교환학생들은 2천년도 2월에 출국할 예정이며, 각 학교 기숙사에서 1년간 생활하게 된다.

## 오는 19일, 예비군 보충교육 실시

예비군연대는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을사 절 뒷편 11대대 정무관 및 교장에서 예비군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로는 △복합 및 편입 학생중 지역현원 미참자 △재학생 중 예비군 훈련 미참자 △년경 예비군 훈련 8시간 미만 필참자 이며, 복장은 예비군복으로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하리띠 △고

무림 △신분증(학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교육대상자는 소집통지서와 본인 도장을 예비군연대(영산관 1층)에 제출해야 하며, 훈련소 지연도착자(오전 8시이후) 및 복장 불량자는 위병소의 통제로 입소가 불가능하다.

# 동약로

## 당당한 위법



에년과 다를 바 없이 11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동약 곳곳은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광장에서 치러지는 2차 선거유세장까지 이어진 선거운동의 열기는 선거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여러분 등록금을 삭감은 못할 망정 인상이 웬말입니까?" "통일의 시대를 맞이해 남북대학간의 자주교류 실현과 범동국인이 참여하는 통일대축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선거 공약을 외치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에 수업을 들으러 가던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학생들 사이에 선거유세를 경청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유독 눈에 띈다. "물론 걱정되지만 전 우리아들을 믿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잘은 몰라도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 아주머니는 다른 아닌 32대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한 이승복(반도체과학3)군의 어머니이다. 아들이 총학생회장이 되면 국가보안법으로 수배돼 수강생활동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어머니의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장들 아들로 두고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한총련 대의원들은 수배생활과 수강생활을 치러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수배자들은 조계사에서 1년이 넘게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심수들은 길게는 40년동안 차디찬 감옥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뺏긴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어머니 또한 탑골공원에서 3백회가 넘도록 매주 양심수와 국가보안법으로 수배를 받는 이들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외치고 있다. 점점 높아가는 선거열기와 아들의 유세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진지한 모습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서슬 퍼런 족쇄가 발디딜 틈 없는 세상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양경인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WTO 뉴라운드 협상 대비 공청회

# “NGO + GO = 나라가 살길”

## 농업, 쌀 추가 개방 불가... 환경, 논의대상 될 수 없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는 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뉴라운드 3차 각료회의에 각계 각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합동 대책기구인 뉴라운드 협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뉴라운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범국민연대를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무역협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해 의견을 개진했다. 각 단체별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 농민 단체-쌀 시장 추가 개방 불가, 농업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등을 요구 △환경단체-종이와 나무 등 생물자원에 대한 비판적 조치 반대와 유전자변형농산물 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 △경제단체-반덤핑 협정 개정 관철 등을 주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최진국 정책위원장은 "UR이후 수입농산물이 범람

하여 농촌은 생산기반을 잃고 부채가 급증했으나, 농가소득을 보상해주는 정책수립은 전무하다"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해 소득보상제와 직접지불제 등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직접지불제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아직도 재정현실이 열악하다"는 입장을 밝혀 조기실행은 어려운 것임을 시사했다. 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원석 단국대 교수는 "UR이후 세계무역량 확대는 소수 강대국의 이익으로 귀속되었고, 개도국은 환경·복지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우리 나라 역시 UR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증대되어 결국 IMF체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IMF로 인해 이미 많은 부분이 투자개방화 됐으며 △우리 나라도 이미 제3세계에 많은 양을 투자했고 △이미 여러 차례 반대에 왔다는 것을 근거로 더 이상 협상을 미루는 것은 정부간의 분쟁이

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재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 WTO 무역시스템은 자본의 이동만을 촉진시키고 있을 뿐, 국내외의 환경법규와 마찰을 빚고 있다"며 "환경은 이를 상품으로 다루는 산림 생산물협정의 논의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유예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전자 조작식품(GMO)에 대해서는 의무표시제를 시행해 소비자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뉴라운드 각료회의 개최를 앞두고 제기되는 WTO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OECD, IMF, IBRD와 마찬가지로 WTO가 점차 미국을 위한 세계전략기관으로 되어간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예로 WTO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근 EU와 체결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투자협정·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의 이종희 집행위원장은 "자유무역으로 다국적 기업이 갖고 남는 것은 제 3세계의 약탈과 이의 합

법화"라고 전제한 뒤 "97년 IMF 경제침탈은 WTO의 기본적 속성의 연속이었다"며 WTO의 불공정성에 대해, 뉴라운드 협정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주관으로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환경운동연합의 김정수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경제위기의 발판이 된 WTO 협상과 UR에 대한 반성과 평가 없이 협상에 임하려 한다. 이런 수준의 공청회는 이미 몇 년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연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송보경 회장은 "지금은 협상에 대해 정부와 NGO가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나, 단지 여론 수렴에 그쳤을 뿐이다"며 정부협상 대표단에 NGO의 참여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아  
ring@cakra.dongguk.ac.kr

## 이주의 열사

전택일 (당시 22세)

1965년 평화시장 내 삼일사에 견습공으로 취직한 이후 한미사 재단보조, 재단사로 일한 전택일 열사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어내기 위해 1969년 '바보회'를 조직했다. 그는 홀로 '근로기준법' 조문을 뒤지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노동운동을 시작한다. 그후 열사는 청계천 일대의 노동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노동청에 제출한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경멸과 비웃음뿐이었다. 이에 1970년에는 이 '바보회'를 투쟁단체인 '삼동친목회'로 새롭게 조직하고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같은해 10월 8일 (주)평화시장 사무실에 찾아가 노조결성지원 등 8개항의 요구를 제출하고, 1970년 10월 24일에는 근로조건개선 시위를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만다. 결국,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분신을 결행,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불꽃으로 산화했다.

황정하 (당시 24세)

1980년 서울대 공과계열에 입학한 황정하 열사는 야학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학생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민중과 함께 하고자 노력했다. 1983년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강화되었고, 때마침 11월 11일 레이건 방한이 예정되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대리전정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열사는 6명의 동지와 함께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민주화투쟁'을 주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983년 11월 8일, 이 시위를 위해 도서관 6층 창문을 통해 밧줄을 타고 5층 베란다로 내려가다 난간에서 미끄러져 15m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 11월 16일 운명하였다.

##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말한다

97년 외환위기로 IMF체제가 도래하면서 우리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개방화 조치를 펴고 있다. 외자유치를 위해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투자협정의 '합법적 경제중속'이라는 본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 쓰는 순서

1. 한미투자협정은 무엇인가.
2.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문제점
3. 우리의 대응 방향



최근 우리 영화계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스크린쿼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한미투자협정은 지난 1994년

# “한미투자협정은 자칭한 족쇄”

처음으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이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IMF이후로 경제위기가 닥치고, 98년 6월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면서 '한국측의 필요'에 의해 투자협정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었고, 당시 현 정부는 투자협정을 대통령 방미의 성과로 선전할 바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직접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이러한 한미투자협정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엄청난 효과'는 △IMF이후 하락한 대외적인 불신 해소 △투자협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최혜국 대우를 해줄 경우로 공기업 민영화나 금융기관 국제매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초기에 '가시적'으로 셰이프카드와 스크린쿼터 문제가 정점화되었다. 경제위기 때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셰이프카드

(safe guard) 조항을 둘러싸고 양국간 심한 견해차를 보였으나, 외자유치가 시급한 우리정부는 외국인투자자 보호의지가 담긴 투자협정을 최대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셰이프카드 조항 삭제 요구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애초에 효용성이 없는 제도"라며 "해외로부터 시장경제 원칙을 의심받기 보다 과감히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새 외환거래법 도입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풀린 상황에서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미국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어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는 투자협정체결 여부보다는 오히려 해당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협정 체결로 외국인 투자가 몰려 들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이윤 극대

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한번 협정을 체결하면 최소 20년 동안 묶여 버릴 수밖에 없는 국제협정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양자간 투자협정과 관련 미국무성은 1998년 12월 1일 발표된 공식문건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이 갖고 있는 6가지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간 투자협정은 △미국기업에게 자신의 경쟁자에 맞지 않는 최혜국 대우 자격을 보장 △투자협정은 투자수용을 명백히 제한하고,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 △투자자들이 투자국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지체없이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 △투자대상국가가 현지 생산물에 대한 수출 쿼터 등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이며 무역과정을 왜곡시키는 관행을 요구하는 해당국가의 권한을 제한 △체약국 정부와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고, 해당국 국내법정을 이용할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국적으로 상관이 없는 최고 경영자를 선임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 등이다. 현재 세계 43개국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제3세계와 선진국 사이에 있는 신흥산업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협상이 진행중인 경우로서 다른 신흥산업국가와 비교해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고 사실상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IMF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경제프로그램을 관철시키기에 한국의 경제위기는 대단히 유리한 환경이며 더군다나 한국측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로서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만족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투자협정은 '투기'조차도 보호해 정당한 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국적 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동, 인권 환경 기준)의 부과도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기업가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부

뉴라운드 협상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논단

‘피할 수’ 없다면 공격적 대응이 낫다

선진국·개발도상국 입장 고려 ... 중재자 역할 기대

지난 50년 동안 세계의 무역은 연평균 6%에 달하는 고성장세를 이루어 왔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무역의 기본적인 규범을 지탱해 온 GATT가 8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허물고 무역환경의 개선을 유도한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라고 불리는 제8차 국제협상은 참여국의 수, 협상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세계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할만큼 포괄적이고 야심에 찬 협상이었다.

UR은 WTO의 출범으로 무한경쟁의 시대를 개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향후 양허협상을 개시할 것을 사전에 규정하는 등 21세기 세계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UR 협정에서는 일정한 시점에 특정 의제에 대한 국제협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는 양허협상 일정 정체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의제를 기설 정된 의제(Built-in-Agenda: BIA)라 한다.

최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는 뉴라운드 또는 밀레니엄라운드는 바로 이러한 BI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미국과 유럽의 주도아래 있는 무한경쟁의 구체적인 틀을 짜기 위한 포괄적 협상을 말하는 것이다.

종전의 국제협상이 주로 국경의 통과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관세 감면과 비관세 장벽의 제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뉴라운드의 새로운 통상제도는 수출국의 국내 상품생산단계에서는 물론, 수입국의 판매 및 투자단계에서 시장원리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인위적인 재량정책에 제약을 가하고, 또한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같은 국경의 통과에 대한 장벽이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어느 정도 완화되자,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선진국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개도국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개도국의 의욕적인 진출이 이루어졌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이유로 시장잠식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각 생산소소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반영을 주장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중요한 의제는 2000년 1월을 협상 개시 시점으로 규정한 BIA, 즉 농업과 서

비스 분야의 협상으로, 세계 각국은 그 협상의 진행 방향에 따라 국내의 경제구조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 28개나 되는 WTO협정 중에서 양허협상을 필요로 하는 협정이 관세, 농업, 서비스 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과 서비스분야에서 양허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라운드를 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UR협상 당시 가장 어려웠던 농업분야의 협상이 재개되고, 무려 1백55개 분야를 관할하는 서비스 분야의 양허협상이 동시에 개시된다면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협상제도를 제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WTO협정의 모든 양허협상 분야를 일관적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라운드, 즉 뉴라운드를 출범시켜야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가들의 자연스런 입장이라 하겠다.

바로 이러한 뉴라운드협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방향이 있었지만 협상의 준비가 아직 덜된 개도국들과 기존의 국제적인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OECD나 EU와 같은 기구의 입김을 통하여 자신들의 준비된 의지를 관철시키



이승영 경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고자 하는 선진국들과의 피할수 없는 갈등과 이에서 비롯된 신보호무역주의적 대응자세라 하겠다.

UR협상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로서도 이번에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1998년 7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정부의 각 부처는 물론, KIEP나 KIET 등 전문연구기관을 참여시켜 농업, 서비스 등 10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관련국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안은 추상적인 어구의 나열이나 때가 되면 대응하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를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지나친 강요나 개도국의 무조건적인 반대의 입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견지하며 최선의 대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함께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를 이기게 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사설

99민중대회의 의미

일반적으로 민중이라 함은 역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다수이면서도 소수 지배 특권층에 의해 억눌리고 수탈 당하며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한 사회내에서 사회적 약자 내지 피지배 계급을 뜻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폄박받는 존재였던 민중은 그러나 항상 역사의 중심에 서서 역사를 발전시켜왔으며, 사회가 진보해 나가는 데 큰 축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민중들이 지난 주말 여의도에 모여 그들의 11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김대중 정부 들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 민중대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우리사회의 실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많은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농가부채 해결, 의문사 특별법 제정, 경제주권 수호, 한미행정협정 개정, 국가교육재정 확보, 언론개혁 등은 이 시대 민중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가 어디로 향해 달려야 할지를 말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MF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나라는 그들의 리그에서 모범생이라 불리우며, 온갖 경제 지표들을 내세워 사실상 고생의 시간을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중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 97년 이후 절대 빈곤층이 2배 이상 늘어나 1천만을 넘어서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양심수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은 여전히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했으며, 인권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민중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고 인권 또한 역대정권과 비교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시 한번 김대중 정부는 왜 민중들이 모였으며, 거리행진을 펼쳤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

국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요즈음 정국을 보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다. 최근 여야는 언론대책 문건, 야당의원의 대통령 비방 발언 등을 이유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비단 이런 국회의 모습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법안들과 낱알이 늘어가는 우리사회 빈민층을 볼 때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씁쓸함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만을 비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학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이를 이끌어갈 상당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대학들은 엄청난 폭력과 탄압이 가해져도 사회적 모순에 굴하지 않고 곳곳이 사회변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해

왔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더 이상 개혁과 비판의 목소리는 사라져 가고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취업, 학점, 졸업장, 게임, 춤 등 흥미 위주,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고작이라는 느낌이다. 사회와는 동떨어져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곳을 과연 지성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학에 진학하기위해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투자한다. 그러나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개인주의와 현실과의 괴리감이다. 아니 우리가 대학을 그렇게 만든다는게 옳은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에 거는 사회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을 버릴 수 없다.

우리사회는 위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변혁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대학과 대학생은 그 책임감을 절실히 느껴야 하며, 지금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수 스카웃 논란

“전체 대학사회에 이득될 것 없다”

교수사회 폐쇄성 극복·외국인력 확보 노력 등 선행돼야

BK21 등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교수의 연구업적이 상당부분 반영됨에 따라 최근 몇몇 대학들이 타학교의 우수 교수들을 적극 스카웃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교수 스카웃 문제가 불거지자 교수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대학의 교수사회는 학연을 중심으로 한 폐쇄성이 매우 심각하다는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고대신문에서 고려대 교수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교수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연 등 연고에 얽힌 폐쇄성' (36%)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이 비단 한 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하에 교수 스카웃이 이를 다스리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견해도 있는 반면, 오히려 교수사회의 폐쇄성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애써 확보한 유능한 교수가 이러한 교수사회의 폐쇄성에 기인해 새로운 대학의 교수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위 '왕따'가 될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그 손실은 엄청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교수사회내의 문제 외에도 이번 문제가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간내의 문제라는 점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부진했던 대학간의 학문 교류가 교수들의 이동을 통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견해와 교수를 스카웃해가는 대학과 빼앗기는 대학간에 마찰이 심화되어 오히려 학문적 교류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 구성원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수 스카웃이 결국, 우리 대학사회전체에 어떤 이득을 안겨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정되어 있는 국내 대학의 우수 교수 인력을 서로 확보하려고 나선다면 크게 보아서 결국, 집안싸움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 또한, 최근 교수 재임용제나 교수 연봉제 등의 실시와 맞물려 교수의 신분인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스카웃은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스카웃을 통해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인데, 사립대학들의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교수들의 대우에 지장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 확보부문에서까지 무한 경쟁으로 흐른다면 각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보다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수 스카웃 문제는 대학 사회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그 혼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 스카웃 제도 시행에 앞서 교수사회의 폐쇄성 극복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수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인력확보를 위해 외국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연재소설 (8)

# 계론의 필통

글 이우상 그림 삼철공

그것은 전북북 처림의 미국 군인의 사진이었다.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에는 총으로 사냥한 토끼를 거머들고는 파안대소하는 표정의 사진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같은 직감으로 그가 계론의 아버지이다라고 단정했다. 그러한 단정에는 그리 대단한 통찰력이나 예리함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진 속의 미군 사내가 백인이었을 뿐이다. 필통의 비밀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유추되었다.

계론이 묶는 호텔과 그의 스케줄을 떠돌아다니다. 어떻게든 단독 요담의 기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일차적 공격 목표라고 하면서. 내가 떠난 후 너를 길러주신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셨는 줄 아나. 혼자 쓸쓸히 지내시다 입증하는 걸 이웃 사람들, 특히 바로 옆집인 종하네 부모님께서 친부모처럼 모시다가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 묘지도 종하네 선산 자락에 썼다. 우리 잠깐만 만나자. 그 시절, 그래도 우리 십여년간 아웅다웅하면서 지냈잖니. 내가 떠난 후 우리는 오랫동안 너의 빈 자리가 크다는 것을 알고 많이 생각했다. 잠깐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시절을 얘기해보자. 이런 것이 덕태가 마련한 시나리오였다. 일단 나와 재숙이와 덕태가 계론을 호텔방에서 만날 수 있게만 된다면 그 다음은 덕태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다. 문제는 접촉이었다. 전화로 그와 교신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막중한 책무를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복적거리고 누가누구지 분간키 어려운 기자 회견장이 오히려 나올까. 아니면 공허한 웃음들을 기술적으로 나누는 만찬장이 나올까. 덕태의 의견은 만찬장을 택하라고 했다. 입장에 관한 준비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그러나 나는 기자회견장을 택했다. 무시당할 경우 내가 감당해야 할 충격을 줄이려는 계산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도 그는 점퍼 차림으로 나타났다. 무거운 장비를 추스리는 사진 기자들의 차림과 비슷했다. 원론적인 답변만 준비한 듯 그는 시종 웃음을 잃지 않았다. 웃음을 접고 진지한 답변을 이끌어낼 질문자도 없는 듯 보였다. 완전하게 알아듣지는 못했

지만 웃음의 껍질 뒤에 있는, 참으로 한심하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세 명의 실무자 중 가운데 자리에 앉아 그는 진주군 장수처럼 여유와 웃음이 넘쳐났다. 그의 웃음만 보면 우리의 미래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안심되기도 했다.

잡다한 질문과 원론적인 답변으로 기자회견은 끝났다. 기자들의 틈새를 비집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 그의 곁에 다가가는 용맹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나 자신도 놀라왔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미스터 계론이라고. 동시동작으로 준비해간 작은 봉투를 건네줬다. 순간 그의 표정이 멍뚱 하더니 나의 얼굴을 정식으로 바라보고는 명함과 족자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들었다. 이미 그는 계론이 아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진지 오래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상기된 눈빛으로 내가 건넨 봉투를 받아드는 것으로 봐서 그는 분명 계론이었다.

졸업식을 사흘 앞두고 계론은 미국으로 갔다. 우리들은 킨들거리며 우리들끼리의 작별을 준비하던 교실에서, 구석자리에 앉았던 계론을 선생님이 데리고 나갔다. 우리의 작별의 인사도 없이 운동장 가운데로 지프차가 먼지를 날리며 그를 싣고 가버렸다. 그동안 추진 중이던 미국 입양이 미군부대의 주선으로 성사되었다는 선생님의 짙막한 설명이 계론의 고향사를 대신했다.

200리 떨어진 P시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갔던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이 또다른 계론이 되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다. 도시라는 별세계는 나에게 녹되지 않은 외계였다. 그곳에 이미 진입해있던 아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손발이 척척 맞는 동지들이었다. 촌놈이란 딱지는 졸업할 때까지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서투른 행동은 주눅이 가미되어 더욱 비틀거리는 자세만 남았다. 같은 촌놈인 녀석을 찾아 동지를 규합한다거나 집요하게 찢러대는 놈을 단칼에 처단해 버려야겠다고 용을 써보았지만 그건 형상화되지 못했다. 거대한 조직에 의해 주눅드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었네니까.



완전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웃음의 껍질 뒤에 있는, 참으로 한심하다는 표정은 읽을 수 있었다.

# 가을철의 양생법(養生法)

가을은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땅을 일구는 농부들의 손길은 보람된 수확의 손길로 바뀌고, 초목은 지난 여름철의 푸르름을 잃고 한껏 단풍의 화려함을 뽐내면서 쓸쓸한 가을바람에 미련없이 떨어진다. 이렇듯 가을철은 축복의 열매를 선사함과 동시에 다가올 겨울동안의 곁직한 휴식을 예고한다. 그러나 자연을 등진채로 반복된 일상속에서 나날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칫 자신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체의 한 구성원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다. 그래서인지 마치 인간만이 만물의 우두머리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자아내고 나아가 자연을 지배하는 듯한 우월감을 가지게되며, 교만에 빠지기 쉽고 서로의 이익만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싸움도 불사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아 인간 본연의 자세를 자꾸 흐리게 된다.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체들 중 저마다 귀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옛부터 사람들은 계절의 흐름에 맞추어 자신의 생명력을 기르기 위한 양생법을 실천하였다. 다른 계절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을철에는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을의 숙살지기(肅殺之氣)를 피할 수 있어서 건강에 이롭다고 하였다. 한편 가을철에는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지나친 미련과 욕심을 버리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수렴하여 생각과 의지가 함

부로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겨울철을 대비한 바람직한 양생지도(養生之道)로 여겨왔다. 또한 가을에는 우울한 정서에 물들기 쉬워서 특히 쇠약한 노인들은 상심에 빠져들며 결국 숙환(宿患)이 생기기 쉬우므로 자식들은 아침저녁으로 잘 봉양하고 안색을 살피며 더불어 정답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서 부모님을 보살피드렸다고 한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기후가 건조하므로 기관지 천식과 같은 호흡기의 건조한 기운을 적셔 주어서 질병을 예방하기도 했다. 또한 이때쯤에는 발을 항상 따뜻하게 관리하여 냉기(冷氣)가 하체로 침범하여 사람의 기력(氣力)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문진영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

# “이제 더이상 작가지망생이 아닙니다”

문화예술대학원 원종국·전남진씨 각각 진주신문·문학동네 소설·시부문 당선



원종국(문예창작 석사과정 4학기)

문화예술대학원에 경사(?)가 났다. 작가지망생 대학원생 둘이 동시에 '등단'을 해 꿈을 이룬 것이다. 바로 진주신문 소설부문에 중편소설 '기동'이 당선된 원종국(문예창작 석사과정 4학기)씨와 문학동네 겨울호에 시 '나는 공금하다'의 4편이 당선된 전남진(문예창작 석사과정 3학기)씨가 그들이다. 사실 '당연한' 입문과정을 갖고 떠들썩하게 취재한다는 것에 망설였지만 후배들에게 자극과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는 원종국, 전남진씨를 만났다.



전남진(문예창작 석사과정 3학기)

**원** 종국씨는 청주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난 97년에 본교 문화예술대학원에 입학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95년 본교 경주캠프에서 주최한 시립문화상을 수상한 것이 인연, 본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그가 '세상에 말을 건네는 수단으로 소설을 선택한지' 8년이나 된다. 군대 2년, 직장생활 2년 빼고하면 4년이다. '막연하게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젠 소설가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은지'는 2년이다.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그는 그 꿈을 이룬 것이다.

그의 필명은 '원시림'이다. 95년 봄부터 술하게 신문사로, 잡지사로 원고를 보낼 때 필명을 쓰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한동안 안 썼다고 한다. 이번에 필명의 첫 인상이 코믹(?)해서 혹시 일부러 의도했는지 물었는데 아니란다. 혹시라도 시립문화상을 탄 것이 필명 짓는데 영향을 끼쳤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란다.

"한번 들으면 안 잊혀지죠? 원시림. '시림'은 소설이라는 것이 좋은 글(詩)이 숲(林)을 이뤘다라는 뜻도 되고, 나도 앞으로 좋은 글(詩)이 숲(林)을 이룰 때까지 쓰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설 한편 쓰고 나면 여드름이 얼굴을 뒤덮을 정도로 '체력전'을 펼치는 원씨의 관심사는 역사이다.

기존에 나왔던 역사소설과는 달리 현재가 없이 미래에서 과거를 본다. 역사는 것은 시대가 바뀐다하더라도 인간의 속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며 그 같은 반복을 막기 위해 현재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암시하는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그의 소설을 두고 'SF 소설이다'라는 웃지 못할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전** 남진씨의 첫인상은 시인과는 거리가 멀다. 보통 시인하면 면도 안한 얼굴에 부시시한 머리, 떨리는 손가락 사이에 타고 있는 담배,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옷, 세상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전남진씨는 그렇지 않았다. 깔끔한 양복에 깨끗한 얼굴... 그냥 보통 셀러리맨 같이 보였다.

전남진씨는 경주캠 국문과 출신이다. 10년동안 학교를 다니느라 94년에 졸업을 했고 내년 3월이면 아기 아빠가 된다. 현재 직장에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문학소녀였는데, 그 여학생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 여학생보다 더 잘하겠다고 하는 복수심에 시작한 문학이라고. 그렇게 우습게(?) 시작했지만 시에 대한 열정을 갖고 닦아 준 곳이 바로 경주캠 국문과라고.

"경주가 주는 묘한 지역적 매력은 시를 쓰게 만들었어요. 사실 지방 분교라는 콤플렉스가 있었지요. 하지만 내 후배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않게 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니다. 이것이 창작하는데 열중하게 만들었지요"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산배가 되기 위해 직장생활도 열심히, 창작도 열심히 하는 전남진씨이다. 96년부터 문예지에 원고를 보내 거의 본선에 올랐지만 나이가 30이 넘도록 '물먹었다'고 한다. 그것의 결실이 오늘에야 이뤄진 것이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무엇을 위해 시를 쓴다. 내 시의 주제는 무엇이더라는 것을 정립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의 주제는 인간이라고. 인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와 인간과의 관계를 시로 쓰겠다고 한다.

이 시대는 문학이 죽은 시대이고 특히 시가 죽은 시대이지만 독자들이 진지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훈련시키는 창작자가 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 매체비평

-영화편

파더레스(fatherless)

-아버지 없는 시대(1998)



주인공 무라이시 마사야의 용기에 같이 카메라를 들고 따라주었던 그의 동료는 '파더레스'를 찍는 과정이 '상처받은 영혼의 재생'이었다고 말한다.

아직도 영화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순진하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영화'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영화가 현실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다큐멘터리 ‘파더레스’는 현대 다큐멘터리의 형식적 가능성이 어디까지 와있으며, 극영화와 차별지어지는 그 지점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었다”

같다. 여기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있다.

‘파더레스(fatherless-아버지 없는 시대)’(1998). 일본영화학교 학생의 졸업작품으로 만들어진 이 다큐멘터리는 일본, 대만, 뉴욕, 네덜란드 등의 각종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화제를 불러모았고, 일본에서는 5주간 극장 개봉을 했던 작품이다. 지난 11월 9일 막을 내린 국내의 유일한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제3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도 개막작으로 이 영화가 상영되었다. 영화제 기간동안 유일하게 한번 더 상영을 했기에 뒤늦게 관람기회를 얻었던 나는 국내에서도 다큐멘터리의 일반 상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더레스’를 소개하며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 보려한다.

다큐멘터리 ‘파더레스’는 현대 다큐멘터리의 형식적 가능성이 어디까지 와있으

며, 다큐멘터리가 극영화와 차별지어지는 그 지점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었다. 따라서 주로 TV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접하는 한국의 현실이 여전히 ‘동물의 왕국’ 혹은 ‘인간시대’ 등의 정형화된 다큐멘터리만을 보여주고, 그것이 다큐멘터리와 대한 경험의 거의 전부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다큐멘터리는 그 사회 사람들의 현실 인식의 수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된 한국의 다큐멘터리들은 폐광 위기에 직면한 탄광 노동자들을 다룬 작품에서부터 성과 결혼 제도에 대한 개인의 고백을 담은 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고, 점점 더 개인적 주제를 다룬 작품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파더레스’는 함께 상영되었던 미국과 일본의 다큐멘터리 중 개인적 주제를 다루는 데 독특한 형식을 보여주었

던 작품이어서 소개해 보려고 한다.

‘파더레스’의 주인공 무라이시 마사야는 고통스런 성장기의 기억 때문에 가족의 의미를 알 수 없게 되고, 양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의 불안을 갖고 있는 22세의 한 청년이다. 그는 카메라로 자신의 수치스런 개인사를 들춰내고 진실을 밝히고 나면 자살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는 동료에게 카메라로 찍도록 부탁하고 가족들을 한 명씩 만나 자신의 심정과 그들에게 느끼는 공감을 털어놓는다.

그의 기억에 책임감이라곤 전혀 없었던 아버지, 여자에 대한 거부감을 키워주었던 자유분방한 어머니, 민감한 사춘기에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계부의 존재, 어린 동생에게 잔인할 정도로 냉담했던 형. 오랜 동안 단절되었던 그들 사이의 벽은 더디게나마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속내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 모두가 갖고 있는 각자의 고

통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마사야의 억압되었던 감정은 밖으로 폭발하지 않고 안으로 녹아내린다. 들춰내면 다시 덮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그의 비밀과 가족사는 주인공 마사야의 용기와 인내로 결국 자기 치유의 과정을 겪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무라이시 마사야의 용기에 같이 카메라를 들고 따라주었던 그의 동료는 ‘파더레스’를 찍는 과정이 ‘상처받은 영혼의 재생’이었다고 말한다.

살다보면 영화보다 훨씬 극적이라고 할 만한 현실과 마주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현실의 자기장안에 갇혀 있을 때 스스로 그 힘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힘들다. ‘파더레스’의 주인공은 자기 치유의 과정으로서의 다큐멘터리 혹은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임재원  
연극영상학부 석사과정 3학기

# 전화는 현대시대, 예절은 필수시대!



“현대전화, 이제 눈치보며 씹시다”

전화는 현대시대, 예절은 필수시대!  
이 문구가 가장 잘 들어맞아야 할 곳이 바로 우리 대학의 강의실 안과 도서관 안이다. 하지만 그러한 예절이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곳이 바로 강의실과 도서관이라면 아이러니가 아닐까.  
현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학생이 드물 정도로 우리 대학에 급속도로 전파된 현대전화. 불과 1, 2년 새에 현대전화는 대학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해 버렸다. 이러한 현대전화 사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대전화 대학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데서 기인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 현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많은 학생들이 현대전화 예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강의시간에 울려대는 가지각색의 ‘삐리리 ~~~~’ 소리, 예전의 평범하던 전화벨 소리와는 달리 이제는 최신곡을 비롯해 흘러간 트로트까지 전화기가 멋지게 연주해내고 있다. 따라

서 가지각색의 소음이 강의실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강의실과 도서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내 곳곳에서 전화를 들고 통화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을 보는 것 또한 그리 좋은 모습만은 아니다. 바로 5미터 앞에서는 학생을 부르기 위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현대전화문화의 현주소가 아닐까. 반례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고 편의를 위해 현대화는 현대전화라지만 그래도 요즘 모습을 보면 너무 현대전화 사용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저녁 10시경, 학교 주변에서는 술에 취해 전화를 붙잡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그러한 경우 최소 10분이상 통화를 하는데, 이러한 모습 또한 현대전화가 가져온 대학가의 새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결코 보기 좋지 않은 건 물론이고 결코 저렴하지 않은 현대전화 요금까지 감안 한다면 이러한 모습은 분명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바른 현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모두 머리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문화부

## 휴대폰이여! 이제 도서관에서 잠을 자라 ... 도서관 '휴대폰불능지역'

도서관에서 생긴 일  
도서관이 떠나갈 듯 전화벨이 울린다. 한 학생이 여유만만하게 전화를 받는다. “어, 어디야? 여기 도서관이냐. 도서관이냐! 나 조용히 해야돼. 조용히 해야 한다구! 안 들려? 끊어. 다시 전화해”  
참나, 정말 예의없는 학생이야. 어떻게 도서관 안에서 전화를 켜 놓을 수 있지? 그리고 기가막혀! 어떻게 뻔뻔하게 열람실 안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거야.  
그래도 나는 예의를 지킨다. 왜냐하면 진동모드로 바꾸어 놔기 때문이다. 드디어 전화가 오는군. “드드드드 드드드드” 역시 나의 최신형 핸드폰은 성능도 좋아서 책상 전체가 다 울릴 정도로 진동이 ‘짹!’ 이구나. 달려라! 달려! 전화 끊기 직전에 열람실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자. 난 예의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열람실 안에서 야 전화를 받을수 없지. 일어나는 소리 요란하고, 공부하고 있던 옆 학생 특 치고는 달린다. 도서관이 무너져라 달려간다. 그러다가 도난방지 바(bar)에 걸려 넘어진다. 악! 그래도 전화는 받고야 만다. “여보세요? 누구요? 양심씨요? 여기 양심씨 없는데요. 전화 잘못 걸으셨네요.”

서울캠 도서관 3층 정기간행물실은 '휴대폰 불능지역'이다. 그동안 아무리 '열람실에선 핸드폰 및 호출기 스위치를 OFF로' 라고 붙여 놓아도 여전히 학생들은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서관 측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현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휴대폰 전파차단기'를 설치, 현재 3층에만 시범적으로 운용, 기계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3층에만 휴대폰 전파차단기 여덟 켓트를 설치했는데 011, 017 셀룰러폰은 거의 작동이 안돼지만 간혹 016, 018, 019 등의 PCS는 울리기도 한다고.  
현재 내년도 기계구입예산안을 올렸으며 예산이 책정되고, 기계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3층 열람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체에 설치할 예정이다. 물론 이 기계가 도서관 전체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일정 지역의 휴대폰 전파만을 차단시키므로 휴대전화 등에서는 통화가 가능하다. 기계값도 만만치 않다. 전파차단기 한 켓트의 가격이 1백만원으로 도서관 열람실 전체에 설치하려면 대략 3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도서관의 최병주 과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서로 예의만 지킨다면 이런 식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서울캠에서는 본관과 이과대 과학관 옥상에 현대전화가 좀더 ‘잘 터지게’ 하기 위해서 011(SK 텔레콤)과 016(한국통신 프리텔) 중



서울캠 도서관은 지난달 28일부터 3층에 휴대폰 전파차단기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사진의 원 안이 전파차단기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 내 기필코 학생들이 폰을 끄게 하리라! ... 교수님들의 강구책

사례 1  
나에게도 '커피한잔'  
잠이 스트르르 쏟아지는 강의시간, '띠리리리리~'  
나를 깨우는 음악소리가 있다. 강의중 졸던 학생들에게 더욱 좋은 벨소리, 이에 커피한잔 까지 공짜로 마신다는데. 한편 미처 진동으로 바꾸지 못한 휴대폰주인은 전 학생들에게 커피를 돌려야 하는 신세라고 한다.

사례 3  
내 휴대폰 돌리도~  
수업중 벨소리가 울리면 교수님께 휴대폰을 돌려야 하는 방침이 있다는데. 휴대폰 사용하기도 아까운데 공짜로 휴대폰까지 돌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학생들의 잘못으로 휴대폰이 울릴때마다 휴대폰을 모으면 교수님은 휴대폰 잠사 하실려나?

사례 2  
초코파이를 돌려라  
‘판따따라라라~’ 영어회화 시간 어디선가 휴대폰 소리가 들려온다. 갑자기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지르는데, 수업중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모든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돌려라고 한다. 배가 고프는 학생들에게 그처럼 반가울 수가 없는데, 수업중 울린 휴대폰 소리로 눈물을 감추고 초코파이를 돌려야 하는 휴대폰 주인은 억울(?)하기까지 하다.

사례 4  
학점이 날라간다  
“교수님, 제발 학점만은 꺾지 말아 주세요.”  
수업중 울렸던 휴대폰 소리때문에 내 학점이 날라가는구나~ 휴대폰이 울리면 그 학생의 학점을 꺾는다고 교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학점까지 꺾는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학생도 있건만 면학분위기를 흐트러며 분통을 터뜨리는 교수님 앞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내 점수 관리 잘하려면 휴대폰은 꺼두는게 필수!

사례 5  
나 국제전화 써도 돼?  
어디선가 휴대폰이 울리자 한숨쉬던 목소리와 함께 휴대폰 요금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수업시간에 휴대폰이 울리면 교수님께 국제통화를 10분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잘못 울린 한 번의 휴대폰 소리에 감당해야 하는건 얼마마한 휴대폰 요금이라니, 국제전화로도 만만치 않는데 국제통화는 웬말이고.

사례 6  
내 수업은 듣지마  
수업을 듣는 것에도 자책이 주어진다(?) '교수님의 강의 시간에는 강의소리와엔 다 소음이다'는 방침이라 수업중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수업을 듣지 못하게하고 바로 퇴장을 시킨다고 한다. 한자라도 강의내용을 놓치기 싫어 끝까지 퇴장만은 안된다며 빌어보는 학생도 있건만, 수업이 듣기 싫어 일부터 폰 소리를 울리게 하는 학생들도 있을까?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 메아리

## 역사의 굴레

▲1930년 초 구소련의 작가들은 당성의 원칙을 존중하며, 작품활동을 해야만 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성은 마르크스주의의 논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야 했고, 당 검열관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했다. 스탈린을 옹호하고 노동자들이 약진과투쟁에 계급투쟁에서 승리해 평등을 누리는 내용의 문화작품만이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의 당성. 문화에 가장 중요시되

는 작가의 상상력까지 배제시키는 그 위상은 그야말로 무시될수 없는 존재였다.  
▲몇주 전 텔런트 서갑숙의 '나도 가끔은...'이란 서적으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다.  
저자는 상업적으로 책을 만든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이런 책을 쓰고 난후 "나의 연애생활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나의 명예를 팔아먹어 돈을 위해 책을 쓴다면 너무 무모한 행동이지 않느냐"며

반문까지 한 바 있다.  
이런 논리로 대응하는 저자에게 '그래도 돈 때문에 썼지?' 하고 되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 문헌학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요사이 강의에서도 한문쯤은 나오는 유명한 이름이 꽤 버렸다. 문자가 때문이 아니라 기자의 위상은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도미노 현상적으로 다른 기자들의 정치 조작과 친자발기 등이 드러남으로 국내인

론의 부패상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자 3명중 2명은 친지를 받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구소련의 사회주의 당성은 스탈린 체제를 유지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인간상일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당성은 돈이다.  
조선 건국후 6백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돈 있는 사람은 양반이듯이 각 시대마다의 당성은 있는것 같다. 현 시대의 당성

인 돈, 명예와 직업까지도 내팽개치면서까지 돈에 무릎을 꿇는다.  
과거의 사람들도 현재와 같이 명예와 직업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그 시대의 당성을 추종했을까?  
이 모든것을 떠나 우리가 만든 당성이라는 것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련의 사태에 비애를 느낀다.  
박양우 학술부장  
woo@mail.dongguk.ac.kr

# 잡은소식

학교 안에서

시련

서울캠 연극영상학부 졸업공연. 1692년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마녀사냥을 소재로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얘기하고 있다. 아서 밀러 원작, 연출 조준희.  
오는 20일까지. 평일 6시반, 20일 3시, 6시반. 서울캠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문의 2260-8753

그리고... 그림전

서울캠 미술동아리 그리고...그림은 제 13회 정기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소품전과 달리 다양하고 원숙한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캠 학생회관 연회관에서

제 21회 전자전시회

서울캠 전자공학과 학생회는 제 21회 전자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보다 뛰어난 작품과 논문을 만날 수 있다.  
전자인이 하나가 되는 자리.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캠 밀리미터파 신기술 연구센터에서

고적연구회 사진전

경주캠 고적연구회에서 '제 19회 고적연구회 사진전 및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전통의 사찰'이라는 주제로 우리 문화에 잊혀져 가는 고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하며 삭막한 현대에 살고있어 마음마저 메마를 수 있는 분들에게 옛것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선보일 좋은 기회.  
오는 16일~20일까지, 경주캠 학생회관 2층 전시실에서.

학교 밖에서

아름다운 사인(死因)

자살한 여자들의 유쾌하고 솔직한 수다를 통해 죽음이라는 소재를 풍자와 위트로 그린 작품. 영화, 연극, TV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장진의 뮤지컬 데뷔작이다.  
오는 24일까지. 수, 목 7시반, 화, 금, 토 4시, 7시반, 일 4시 (월 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문의 516-1501

소나기

등록금이 오른다!

△등록금 올리는 대신 학생들을 위한 복지공간을 더 확충해 주세요.  
 △학생들은 그냥 오른 등록금을 아무말 없이 내기만 하면 되나요?  
 △등록금이 오르면 학생들의 스태모도 된다.  
 △등록금을 올리면 본관도 올라가나요?  
 △등록금이 오르는건 너희들만 알아라.  
 △우리 등록금 올려서 일산에 병원 지으면 우리는 그 병원 무료사용인가?  
 △이월적립금 얼마 쓰고 또 올린다고 난리야?  
 △등록금은 교육환경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등록금만 오르고... 인상 결사반대!  
 △등록금이 오르면 학우들의 원성도 높아진다.  
 △학생이 '뽕'이나?  
 △등록금은 어디에 쓰이지? 병원건립에? 그럼 그 병원 주인은 우린가? 괜히 강도 당한 기분.  
 △돈 많은 나로서 10%쯤이야!  
 -근대대 백으로 면제된 강남주민  
 △등록금도 오르면 학생들의 교육환경 수준도 올라가나요?  
 △올려라. 나는 졸업한다.  
 △등록금이 오르고 마음은 내려가고...  
 △우리는 돈 짜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BK21의 우수한 인재들이 요료코롬 한거 아닌갑?  
 △우리 엄마 허리 아프시다.  
 △장학금도 인상! 장학생도 증가!  
 △내가 뭐 갑부집 딸인줄 아세요?  
 △난 어떻게 살라고 차라리 학교에서 나를 짜르시오.  
 △장학금은 동결하면서 등록금만 인상하면 어떡해.  
 △이런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교육환경도 올라가나요?  
 △이젠 털어도 더이상 먼지밖에 안 나와요...  
 △학생들이 등돌리면 학교도 등돌릴까?  
 △등록금이 오르는데 학교에선 우리에게 뭘 해주실건가요.



교수확충, 수업 질적향상의 기본

얼마 전까지 교정에 울려 퍼지던 노랫소리를 기억한다. 간호학과 학우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던 노래소리. 학생으로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그들이 멋져 보였다. 그리고 서로 맡은 하지 않았지만, 동조의 느낌을 받았다. 교수확충의 문제는 비단 간호학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간호학과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뿐이다. 우리는 교수확충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수업을 받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제대로 이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얼마 전,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다. 그 친구의 학교

는 최저 이수확점만 채우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고 했다. 수강신청을 아직 2번밖에 해 보진 않았지만 인기 있는 과목의 경우 인원이 다차서 듣지 못한 수업도 있었고, 교·필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듣지 못한 수업도 있었다.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때때로 2백 여명이 넘는 강의실에서 현기증을 느끼기도 했다. 더운 여름엔 정말로 심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수업을 제대로 듣고싶을 뿐이다. 우리가 학교 다니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알찬 내용을 가진 수업으로부터 양질의 지식을 얻는 것이라 생각한다.  
 김지현(인문대 역사철학부)

“선거참여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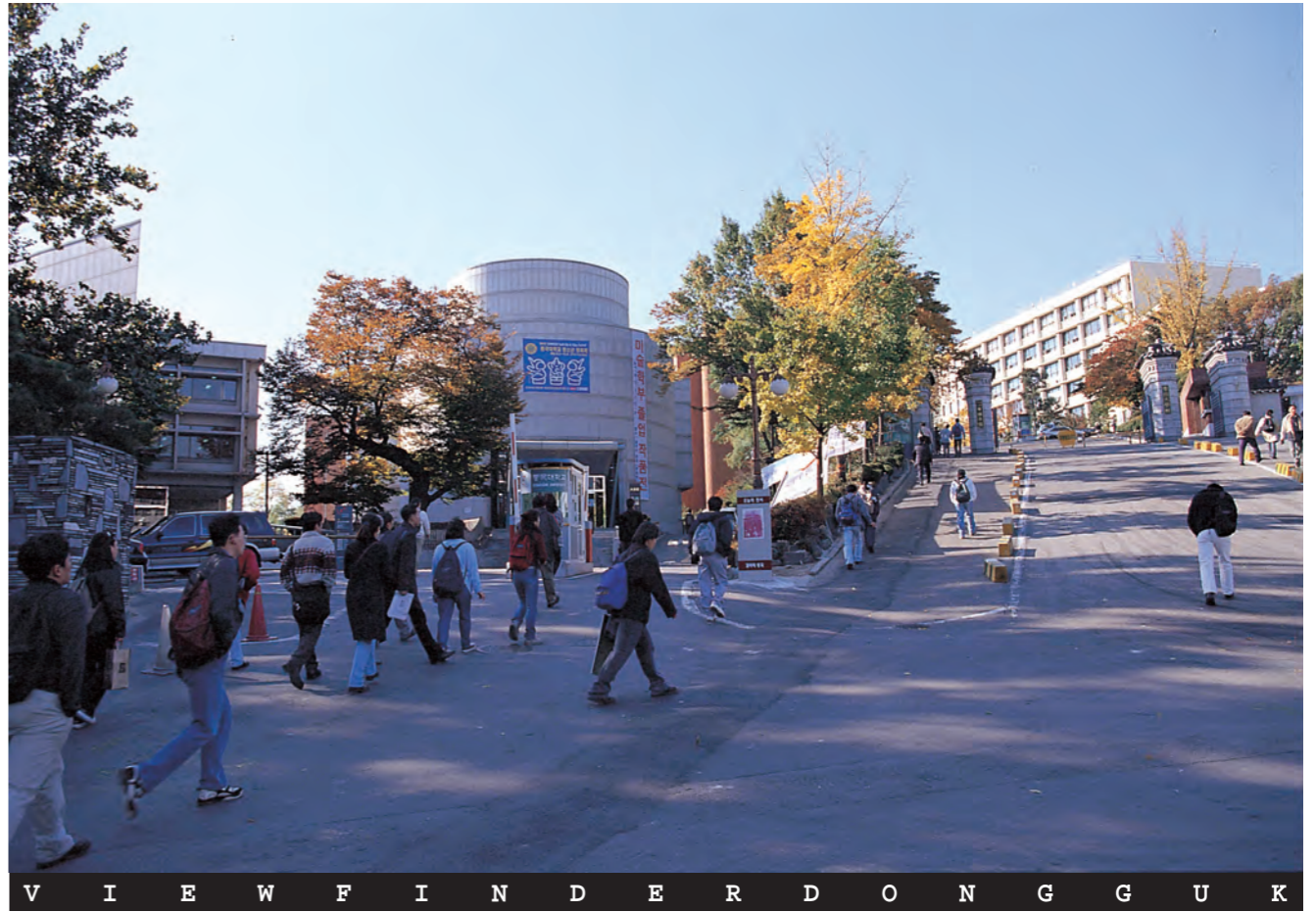
많은 행사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는 선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강의를 들으며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공약을 목터지게 부르짖는 젊은 열기의 후보자들을 만날 수 있다.  
 추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에는 당당한 패기와 뜨거운 젊음이 배어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젊음과 패기에 찬물을 붓는 장면이 눈에 들어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텅 비어 있는 그들의 앞자리이다. 우리는 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 저것 따져보고 비교하면서 고민한다. 그런데 한

학교의 실리를 말하는 우리의 일꾼을 뽑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하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쓴다. 자신이 작은 손재라도 불라치면 권리를 운운하며 투쟁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동대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바로 앞에 권리를 갖다주어도 모두 의면해 버리고 있지 않은가. 선거가 끝나 버린 다음 뽑힌 대표자에 대해 이것이 나쁘니 무엇이 잘못되었다느니 하는 뒷말을 하기전에 자신이 앞장서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대변해 줄 일꾼을 뽑는 것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몸 담고 있는 동대라는 작은 사회를 위해 좋을 것이다.  
 송미영(한의대 한의학과)

건물내 흡연 삼가해야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나 아닌 인간도 존엄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빛과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는 약속을 한다. 학교도 여러 다른 학생들이 부대끼며 지내는 공간이기에 나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친구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약속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약속을 만들어 두었다.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흡연지역'을 정해 놓은 것이다. 참으로 많은 학생들이 '약속된 장소'인 '흡연지역'에서 흡연을 한다. 정말 요즘 신세대는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즐기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지킬 것은 지키는 분명한 젊은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학생들이 흡연실이 아닌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복도 한쪽이 밖으로 난 창이라면 환기라도 될텐데 건물 구조상 복도 양쪽

이 모두 강의실이나 연구실이라서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복도에서 흡연을 해 버리면 통로는 금방 담배연기로 자욱해져 버린다.  
 흡연자인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만큼 비흡연자인 학생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약속된 곳이 흡연장소이다. 작은 것 같지만 지킬 것은 지키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갔으면 한다. 지킬 것은 지키는 젊은이들이 많아진다면 그 사회의 앞날이 어둡지않은 양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정(경주캠 외국어교육원 조교)



상쾌한 등교... '배우고 익히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내일을 준비하는 동국인의 힘찬 발걸음이 신선한 아침공기를 촬영=송광수 동문

모니터링

제 1283호 동대신문을 읽고

독자에게 더 다가선 주제... 경주캠만의 독자성 아쉬워

각자의 생활에 바쁜 동대인들의 귀와 발이 되는 것이 동대신문이라 생각한다. 강의실에 앉아 동대신문을 통해 학교를 둘러보게 하는 것인 만큼 기사와 내용, 질 등 여러가지 부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의 사소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기사의 내용이나, 주제가 때로는 대학생인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편련에 '소나기'라는 고정란을 예로 들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주제는 동대인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엘리트 집단인 대학생이라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인 문제에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만큼 사회적 이슈보다는 학교

내에서 비판받거나, 거론되었으면 하는 주제를 내세우는 것이 독자인 동대인의 호응도도 커지고,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의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동대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둘째, 기사와 사진의 배치 방법이 읽는 이로 하여금 혼돈의 여지를 남기게 한다. 신문을 펼칠 경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진이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난 후 자신의 기호(흥미)에 따라 기사를 가려 읽는다. 그런데 이번호에서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억지로 끼워 맞추었다.  
 1면과 2면(셀링, 두리터)의 경우 기사와 전혀 무관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박스에 배치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의 옆에 사진을 두되 따로 박스를 하거나, 다른 방

법의 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마지막으로 동대신문은 학교 특성상 서울면과 경주면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학교이지만 다른 캠퍼스에서 서로 다른 사건이나 기사가 있기에 그런 배치를 취한거라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 배치 방법에 좀 더 심리를 기울여줬으면 한다.  
 3면을 보면 경주보도를 신는 지면임에도 불구하고 회전문대라는 제목으로 서울캠에서의 소식을 실는다는 것은 약간 어색하다.  
 독자들은 나날이 더 나아지고 더 양질의 기사를 요구한다. 우리의 기대에 늘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땀흘리는 동대신문이 되어주길 바란다.  
 김주현(인문대 국어국문학부)

TEL:22603491·2  
 (0561)7702058  
 FAX: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dgpress  
 나우누리 ID:동대신문  
 천리안 ID: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약광장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오징어까스(1300) 김치탕(1500)
화	소고기카레(1500) 튀김달걀(1300)
수	추경크림볶음밥(1300) 잡채밥(1300)
목	비빔밥(1300) 청국장찌개백반(1300)
금	달조림(1500) 제육튀김달걀(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계실간풍기(1500) 대구탕(3300) 소고기당면탕(1300) 양념통닭(3300)
화	제육떡갈비(1500) 옥개장(3300) 어묵어채비빔밥(1300) 집탕밥(3500)
수	해물카레밥(1500) 우렁콩장찌개(3000) 사골곰탕(1300) 비후까스(3800)
목	후라이드치킨(1500) 모듬전골(3300) 꼬치어묵백반(1500) 더덕구이(3300)
금	집탕밥(1500) 참치전골(3300) 선지해장국(1500) 영양돌솥밥(3300)

(단위:원)

그리고...  
 △이슬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킴동 S군  
 △법대 리바이벌 M.T 갑니다. 어디로? 청평으로요. 형준아 M.T비중 내라 부탁이야.  
 -미키가 모사에게  
 친구가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야! 지난 1년동안 경영학부장하느라 수고했다. 모두들 널 생각하니까 좌절하지 말고 3학년도 열심히 생활해라.  
 -@[\*]@  
 △인문학부 선거운동본부 수고하셨습니다.  
 -투·국  
 △사화회와 창립20주년행사를 준비하신 모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학과 새내기



그리고...  
 △공! 생일두 축하하구 300일두 축하하구... 결혼하면 진자 커텐 만들어줄께... 이쁘게\*\*\*  
 △슬기야! 너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P·S:DKBS 화이팅! -란형  
 △경상학부 권범아와 경화의 300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K  
 △성숙·성희 선배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졸업하고도 꼭 기억해 주세요. I Love you! -깡, 쫄

수고하셨습니다  
 △동목회원 여러분 작품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풍목회 화이팅!  
 △은진아! 6개월 동안 수고 많았고 복학 결정 너무 기뻐.  
 -식총  
 △동국 레오 봉사자! 장소:임마누엘 사랑의 집(지체 부자유자) 시간:11.20. AM10:00 레오인들 우리 함께 이웃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모두

모이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 유일의 동아리 고적 연구회가 사진전시회를 갖습니다. 11월 16일~20일까지 많이 구경 오이소~ -순진한 girl  
 △필하모니 여왕 고소미누나의 3주년을 축하드려요! 꼭 졸업을 해서 결혼을 하세요. ㅋㅋㅋㅋ...  
 -필하모니 14기 DY&KS  
 △회계학과 학우님들 16일 아외수업 있어요! 많이 참석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권기천 성님! 외로와도 슬퍼도 울지 마시고 저희들 생각 많이 하세요. 권!  
 -화랑선무부 15기일동(개)  
 △DKBS 10일자 비디오 점심식사 시간에 바퀴벌레 나오느(쵸의 아파트) 틀어주더니 좀 반성하십시오!!  
 △동국 레오 봉사자! 장소:임마누엘 사랑의 집(지체 부자유자) 시간:11.20. AM10:00 레오인들 우리 함께 이웃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모두

모이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 유일의 동아리 고적 연구회가 사진전시회를 갖습니다. 11월 16일~20일까지 많이 구경 오이소~ -순진한 girl  
 △필하모니 여왕 고소미누나의 3주년을 축하드려요! 꼭 졸업을 해서 결혼을 하세요. ㅋㅋㅋㅋ...  
 -필하모니 14기 DY&KS  
 △회계학과 학우님들 16일 아외수업 있어요! 많이 참석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권기천 성님! 외로와도 슬퍼도 울지 마시고 저희들 생각 많이 하세요. 권!  
 -화랑선무부 15기일동(개)  
 △DKBS 10일자 비디오 점심식사 시간에 바퀴벌레 나오느(쵸의 아파트) 틀어주더니 좀 반성하십시오!!  
 △동국 레오 봉사자! 장소:임마누엘 사랑의 집(지체 부자유자) 시간:11.20. AM10:00 레오인들 우리 함께 이웃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모두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쇠고기무국(1300) 근대국(1300) 김치볶음밥(1600) 곰탕(1800)
화	건새우아욱국(1300) 콩나물국(1300) 생선까스(1800) 돈육달걀(1600)
수	계맛살연두부탕(1300) 오이부추무침(1300) 햄볶음밥(1600) 집채달걀(1800)
목	속음배추국(1300) 민두국(1300) 돈까스(1500) 해물달걀(1800)
금	무채국(1300) 복어채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카레라이스(1500)
토	사래기해장국(1300) 오징어달걀(1600)
일	미역국(1300) 설렁탕(1800)

(단위:원)